

■ '중동 소크' 광주·전남 산업계 비상

# “안 그래도 힘든데...악재 터져” 기업들 노심초사

## 물류비·생산비 등 급등...지역 중소기업 '전전공공' 중기부, 피해 현황 접수...사태 장기화엔 추가 지원

“고환율과 고유가, 고물류비 등 삼중고도 버거 운데, 말 그대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네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이면서 물류비 급등, 수출입 차질 등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중 중동지역 수출 기업은 총 202개사(광주 110개사·전남 92개사)로, 수출액은 5000만달러(광주 3000만달러·전남

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수출 중소기업(9만8185개사)의 14.2%인 1만 3956개사다.

이스라엘과 이란 수출 중소기업은 각각 2115곳, 511곳으로 전체 수출 중소기업 중 2.2%, 0.5%로, 수출액은 각각 3억9000만달러, 1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 및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원유 수출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면서 지난해 중소기업이 최고 수출 기록을 세운 상황에서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료 현지 배송을 위해 사용하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되면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식품업계는 원재료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소기업이 아프리카로 우회하면 최소 보름치의 운송비용 추가 등 물류비 상승과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컸다.

나주 노안면의 농수산물 가공·유통·무역전문 회사인 ㈜골드힐 한문철 대표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업체는 국내 각종 농수산물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으로 20여 일 정도면 수출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해협이 폐쇄되면서 수출 경

로 남아프리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2달 이상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 물류 시장이 즉각 반응해 수출 컨테이너 요율에 최대 3000달러라는 분쟁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폭등, 물류비가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수출품목이 냉동 제품이기 하지만 과수, 생물 등은 이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판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한 대표는 “매일매일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아직 수출로 폐쇄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고 있지 않지만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수출 경기가 풀리는가 싶었는데 답답한 심정이다”며 “조속한 시일 내 상황이 마무리되고 정부 차원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국 등에 벌집을 수출하는 업체인 가보팜스도 현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품 특성상 유통기한 및 재고 관리에 다소 여유가 있지만 이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 변질 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보팜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당초 40여일 걸리는 수출로가 60~80일로 증가했다. 아프리카 쪽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수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온 지역을 경유하다 보니 갈변이나 제품의 변질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변화 추이를 주시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될 거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과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또 피해·애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 상승, 계약 취소, 미수금 발생 등 유형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현대차·기아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참가해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모베드의 국내 판매를 본격 개시했다. 사진은 전시장 내 현대차·기아 로봇스랩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모베드를 직접 체험 조작하는 모습.

## 현대차·기아, 바퀴 달린 로봇 '모베드' 판매 시작

### 부품사·기업·유관기관과 협력...로봇스랩 생태계 구축 물류 배송 등 10종 개발...최적화된 완성형 솔루션 공급

현대자동차·기아가 소형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모베드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완성형 솔루션을 공급키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참가해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모베드의 국내 판매를 본격 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현대차·기아 로봇스랩 관계자들 비롯해 현대트랜시스, SL(에스엘) 등 주요 부품사 관계자, LS티라유텍, 가온로보틱스 등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단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원하는 최근 로봇 시장의 수요에 발맞춰 기획됐다.

얼라이언스의 핵심인 모베드는 혁신적인 바퀴 구동 시스템을 갖춘 현대차·기아의 신개념 소형 모빌 플랫폼이다.

4개의 독립구동 DnL(Drive-and-Lift)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편식 구조를 갖춰 지면 변화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산업별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탑 모듈'을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는 뛰어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모베드가 실의 배송, 순찰, 연구, 영상 촬영 등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대차·기아는 이러한 모베드의 확장성을 바탕으로 플랫폼 단독 판매가 아닌 각 분야 전문 파트너들과 함께 완성형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하는 생태계 주도형 상용화 전략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모베드 얼라이언스는 현대차·기아 로봇스랩, 국내 부품사, 로봇 솔루션 기업,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4자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현대차·기아 로봇스랩은 모베드 플랫폼 개발 및 핵심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현대트랜시스, SL을 비롯한 10개 부품사는 센서·전장·배터리 등 주요 핵심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한다.

LS티라유텍, 가온로보틱스 등 5개 로봇 솔루션 기업은 산업 맞춤형 서비스 구성 및 현장 구축을 담당하고, 한국AI·로봇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은 실증 및 성공적인 도입 환경을 지원해 국내 로봇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특히 로봇 솔루션 기업들은 산업별 요구를 현장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모베드 상단에 결합할 물류 배송, 순찰용 드론 스테이션, 광고 사인지 등 산업 맞춤형 '탑 모듈' 10종을 개발해 고객에게 납품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AW2026 참가를 통해 모베드 완성형 모델의 실물을 국내에 최초 공개하고, 고객이 모베드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180㎡ 면적의 대규모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부스 내부에는 실제 야외 환경을 모사한 배수로, 굴곡, 경사로, 연석 등의 구조물이 배치돼 기존 자율 이동 로봇이 극복하기 힘든 지형을 돌파하는 모베드만의 뛰어난 기동성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부스 내 수동주행, 자율주행, 방송 등 3가지 테마의 체험존을 통해 모베드의 힘과 주파 능력 및 수평 유지 성능, 손쉬운 자율주행 조작성, 탑 모듈의 활용성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현대차·기아 로봇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모베드가 이번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 차원 더 뛰어난 로봇 솔루션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현대차·기아는 핵심 파트너사들과 함께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퍼지컬 AI 생태계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베드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로보틱스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금융위, 중동 피해 기업 대출·보증 1년 연장

### 13조원 규모 금융 프로그램으로 유동성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가 최근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피해 기업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동 피해 기업 지원 과정에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유동성 공급 등을 집행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중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13조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이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과정에서 담당자 면책을 요청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그간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연합뉴스

## 현대차, 휘트니미술관서 '켈리 아카시' 전시 개막

### 야외 테라스 전시장서 '휘트니 비엔날레' 일환으로 개최

현대자동차가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과의 세 번째 파트너십 전시 '현대 테라스 커미션: 켈리 아카시'를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미술관 야외 테라스 전시장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현대차와 휘트니 미술관이 지난 2024년부터 운영해 온 전시 프로그램으로, 매년 테라스 공간에 조각·멀티미디어 등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세 번째 작가로 참여한 켈리 아카시는 유리·청동·석재 등을 재료로 삶과 존재의 유한성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주로 선보여 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적 경험을 기반한 설치·조각·애니메이션 등의 신작들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현대차가 후원하는 '2026 휘트니 비엔날레'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다. 전시는 지난해 1월 LA 북부 산블로 작가의 집이자 스튜디오가 소실된 뒤 남은 골목과 그 골목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유리벽들로 재구성한 'Monument (Altadena)'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작품은 휘트니 미술관 5층 테라스 공간을 화재의 흔적을 기억하는 사유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며 관객들이 생존·상실·남겨진 것들의 불안전성 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도록 한다.

할머니의 레이스 도일리에서 영감을 받은 'Inheritance (Distressed)'도 함께 전시되며, 기억과 여운에 대한 물질적 탐구를 애니메이션으로 확장한 'Remnants (Constellations)'는 테라스 벽면의 대형 미디어 월로 상영된다.

켈리 아카시는 “재건은 단순한 복원이 아닌 정성이 깃든 노동이자 역사와의 대화를 상징하는 실천적 행위”라며 “벽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과정은 기억 자체를 투영하는 것으로, 기억은 끊임없는 관심과 인내를 통해 의미가 되살아난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벽들은 그것이 거처는 노동과 변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함께 모여 과거의 흔적을 품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전하고자 하는 '현대 테라스 커미션'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는 이번 전시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진정한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지역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신규 파트너십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를 통해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예술계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